

구해라. 사랑하는 자라도 부탁하고 구해야 준다

본 문 마태복음 7장 7절

야고보서 1장 5절

할렐루야!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말씀의 주제는 “확실히 구하여라. 사랑하는 자라도 구해야 준다.” 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방향을 짧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여라. 성자에게 구하여라. 그 분체인 선생에게도 구하여라. 주인이 되는 자에게 구하여라. 구했으면 해 줬을 것인데, 안 구해서 못 해 줬다. 알고 보니 내가 잘 알고 사랑하는 너인데, 네가 안 구해서 못 해 줬으니 아쉽다. 일이 다 끝났으니 어떻게 하나? 앞으로는 부탁하고 구하여라.” 입니다.

오늘은 이 방향으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성자 주님께 오늘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시대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합당합니까?” 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그날 꿈에 선생의 혼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처지를 보여 주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너와 같이 이러한 처지이니 깨닫고, 나와 알고 지내고, 내게 구하고 부탁하라고 전해 주어라.” 하셨습니다.

(* 성자 주님께서 꿈에 선생님의 혼체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 주셨는지, 먼저 그 사연을 들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1>

내 혼체가 어떤 한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내 집까지 들어가려면, 한 골목을 거쳐야 하는데 길이 좁아서 불편했습니다.



(두 손으로 가슴 높이로 들어서 좁은 길을 표현한다)

그래서 그 길을 다닐 때마다 ‘이 땅이 내 땅이면 길 좀 넓히면 좋겠는데... 남의 땅이라서 마음대로 사서 넓힐 수가 없어.’ 하며, 나 혼자 속으로만 끁끁 앓고 답답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내 혼체가 밖에 나갔다가 늦게 해 질 녘에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으로 들어오다 보니, 내가 다니는 골목길이 내가 원했던 만큼은 아니더라도 1m나 더 넓혀져 있었습니다. 누가 길을 넓게 해 놓았고, 주변의 다른 길들도 넓게 내놓았습니다.



(양손을 가슴 높이로 들고, 어깨 넓이만큼 벌려서 ‘1m’ 표현하기)

‘누가 이같이 했지?’ 생각하고, 땅 주인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지역의 땅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순수한 아주머니였습니다. 얼마나 순수하게 사는지, 요즘 같은 세상에 시골 아주머니가 입는 몸빼를 입고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고마운 마음으로 그 아주머니에게 “길을 넓혀 주어 집까지 들어오는 골목길이 너무 좋습니다.”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나를 보고 “아니, 여기 살아요? 반가워요!” 하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앞의 큰길을 고치는 김에 여기 골목길도 손을 댈지요. 마음에 들어요?”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는 2m 정도 넓히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1m라서 조금은 아쉽네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는 “진작 나를 찾아와서 내게 부탁하지 그랬어요? 내게 부탁했으면 남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니, 일할 때 흔쾌히 2m를 넓혀줬을 텐데요...” 하며, 아주머니도 아쉬워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이 근방의 땅을 다 가지고 계시는군요.” 했더니, 아주머니는 “맞아요.”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 근방의 땅 두 군데를 부탁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아주머니는 한 사람을 시켜서 ‘지적도(cadastral map, 地籍圖)’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면을 아스팔트 위에 펴 놓고 내게 보여 주면서 “부탁한 땅이 여기 기록되어 본인 명의로 됐네요.” 하며 두 군데를 빨강 줄로 그어서 확실하게 표시해 놔줍니다. 그리고 “본인 땅이니, 언제든지 쓰면 됩니다.” 했습니다. (* 참고 : <지적도> 토지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 즉 토지의 위치, 형질, 소유관계, 면적, 지목, 지번 및 경계 등을 기록한 지도)

이때 나는 생각했습니다. “주인에게 확실하게 부탁하고 구한 것은 내 것이 되어 있구나. 부탁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은 것은, 마치 주인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내 집에 들어가는 골목길을 조금 넓혀 주듯이 기본만 해 주는구나. 아~ 그래서 성경에 성자 주님께서도 ‘구하라.’ 하셨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부탁하라. 그리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랑하는 자인데 안 해 주겠느냐.’ 하셨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끝>

그날 영계에서 내 혼체로 만난 아주머니는 하나님 입장이며, 성자 입장입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 앞에 성자 분체가 되는 선생 입장을 상징적으로 비유해서 보여 준 것입니다. 아주머니 앞에 선생의 혼체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성자 주님과 선생 앞에 그러한 입장임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상황을 내게 보여 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섭리세계 모두에게 전해 주어라.” 하시어, 성자의 계시를 이야기하며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기본을 깨달은 줄 믿습니다. 아멘!

자기가 살고 있는 땅 주인을 알아야 땅을 살 수 있고, 땅 주인을 알아서도 만나서 소통해야 부탁하고 구한 대로 들어주어 편하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주인과 소통하고, 부탁할 것은 간절히 부탁해야 아는 처지이면 쉽게 그 부탁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성자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도 부탁할 것은 부탁해야 들어주시고, 구해야 주십니다. 그래야 서로 더욱 친하게 가까이 지내면서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영계에서 내 혼체가 본 계시같이 여러분이 선생에게 부탁하고 구했으면 “너였구나!” 하고 해 줬을 텐데 소통이 안 되어 모르고, 또 내게 부탁하지 않고 구하지 않아서 못 해 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끔끔 앓고 심정 태우면 안 됩니다. 부탁하고 구할 것은 확실하게 구해야 됩니다. 꿈 계시에서도 주인에게 확실하게 부탁하고 구한 땅은 지적도에 빨강 금을 그어서 부탁한 선생의 이름으로 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절대 부탁한 것만 자기 것으로 되어 있고 해결되어 있습니다.

모두 이 계시를 깨닫고, 성자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라도 꼭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께 확실히 부탁하고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부탁하고 구한 것만 앞날의 일이든지, 현재의 일이든지 해 줍니다. 이는 마치 자기가 쓴 글씨만 써지는 격입니다. 먹는 것만 살이 되고 뼈가 튼튼해지는 격입니다.

하나님과 구세주 성자께 부탁하고 구해야 해 주십니다. 항상 주인에게 부탁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절대 혼자 끔끔거리며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

고, 올해가 가기 전에 빨리 부탁하고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올해의 것은 올해에 종결짓는 것입니다.

섭리사의 한 사람이 내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편지를 보니, 10대 때부터 하나님과 성자를 위해 살고 싶다고 결심하고, 혼자 속으로 끙끙거리며 7년이 넘게 기도하며 준비하고 살았답니다. 그리고 옆의 사람들에게도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네가 그렇게 살 자격자가 아니니까 지금까지 스타가 안 된 것이 아니야?” 했답니다. 이에 크게 낙심하다가, 큰마음을 먹고 막다른 골목에서 선생에게 그동안의 사연을 편지로 써서 보낸 것입니다.

선생은 그 편지를 보고 “내게 진작 편지하지, 기도만 했냐. 네가 마음을 먹고 조건을 세우고 있을 때 편지하지. 7년이나 혼자 걱정하며 살았구나. 네 소원대로 결재한다. 성자 주님도 원하신다. 나는 너를 아니, 내게 부탁했으면 즉시 들어줬을 텐데...” 하고 답을 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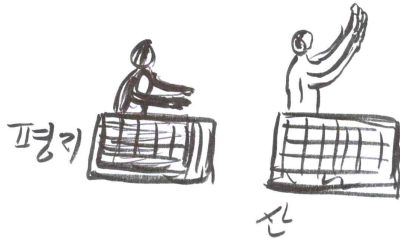
땅을 사려면 땅 주인에게 말해야지, 땅 주인도 아닌 사람에게 말하면 “주인이 그 땅 안 팔 것 같은데, 너에게 팔겠냐.” 하는 식으로 확실하게 모르면서 자기 주관대로 말합니다. 고로 주인에게 부탁하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섭리인들은 신부이니 모두 신랑 되신 성자께 말하고, 그 분께 되는 선생에게도 즉시 말해야 합당하면 즉시 들어줍니다. 그 당시에는 합당하지 않아서 안 해 줘도 조건을 세우면 합당한 자가 되니 그때는 들어줍니다.

“부탁하며 구하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고, 좋아하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안 해 주겠느냐.” 하는 이 말을 깨닫고, 꼭 주인과 소통하여 자기의 것을 부탁하고,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을 간절히 간구하기를 축원합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2>

성자와 통하여 부탁하고 간구함으로 복을 받고 사는 자는 높은 산과 같고, 복을 못 받고 사는 자는 평지와 같습니다.



(‘복을 받고 사는 자는 높은 산과 같고’ : 두 손을 머리 위로 높이 들어서 뽀족한 산을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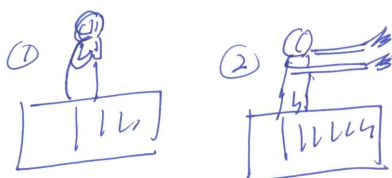
(‘복을 못 받고 사는 자는 평지와 같고’ : 두 손을 가슴 아래로 내려서 평지를 표현)



또한 복을 받고 사는 자는 겨울철의 온돌방과 같고, 복을 못 받고 사는 자는 겨울철의 냉방과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자는 봄날의 대지와 같고, 주님의 사랑을 못 받고 사는 자는 겨울철의 대지와 같습니다.

지혜를 받고 행하는 자는 찬란한 빛과 같고, 무지한 자는 어둠과 같습니다.



(‘지혜를 받고 행하는 자는 찬란한 빛과 같고’ :

양손을 가슴에 댄다가 앞으로 확 빠지면서 빛이 비추는 모습)



(‘무지자는 어둠과 같다’ : 양손 손바닥으로 눈을 가린다.)

또한 지혜를 받고 행하는 자는 진수성찬과 같고, 무지한 자는 개떡과 같습니다. 성자를 품고 그 분체와 일체 되어 행하는 자는 지혜자입니다.

<끝>



이제 성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영상3>

<성자의 말씀>

(전체가 핵심)

나 성자가 내 분체의 혼체를 통해 계시한 대로 부탁하고 구하는 것의 근본을 이야기해 줬으니, 깨닫고 진정 행하여라. 그것이 복이다. 지혜다.

너희 중에서는 나를 보고 “주여, 주여! 성자 주님! 신랑 주님!” 하면서도, 나와 소통이 안 되어 내게 부탁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산다.

남은 2012년 끝자락에서는 꼭 행하여라! 나와 소통하며 내게 구하여

라. 그래야 새 역사로 가는 마지막 전환기인 2012년이 가기 전에 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얻을 것을 얻고, 2013년도에는 그동안 못 이룬 뜻을 이루며 살게 된다.

꼭 간절히 부탁하여라. 내게 부탁하면, 너희는 나의 아는 자이고 사랑하는 자이니 해 준다. 자식이 구하고 애인이 구하는데 구하는 것을 안 해주겠느냐. 합당한 것을 내게 구하여라.

과거에 내게 부탁하지 않아서 못 해 주었고, 구하지 않아서 못 해 준 것이다. 온전히 합당하게 구한 것은 해 주었고, 온전히 합당하게 구했으나 아직 안 해 준 것은 때가 되면 해 준다.

과거 역사 때도 시대가 구하지 않은 것은 못 해 줬다. 부탁하고 간구한 것만 줬다. 내게 부탁하고 구하여 받은 자는 남들과는 다른 차원의 길을 갔고,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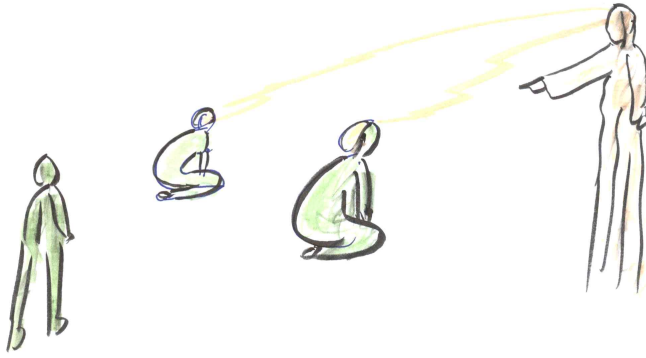
형제끼리도 서로 소통하며 간절히 부탁하고 구하면, 나 성자 안에서 합당한 것들 중에서 자기 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 주지 않느냐.

없는 것이 자기 운명이고, 나 성자의 뜻이라고만 생각하지 말아라. 간절하고 확실하게 부탁하고 구해서 안 되었으면, 미련도 없지 않느냐.

부탁하고 구하면, 상대인 주인이 아는 처지인데 안 해 주겠느냐. 나 성자는 인류의 구원자다. 전능자는 부탁하고 구한 자에게 주어서, 그들의 뜻도 이루고 전능자의 뜻도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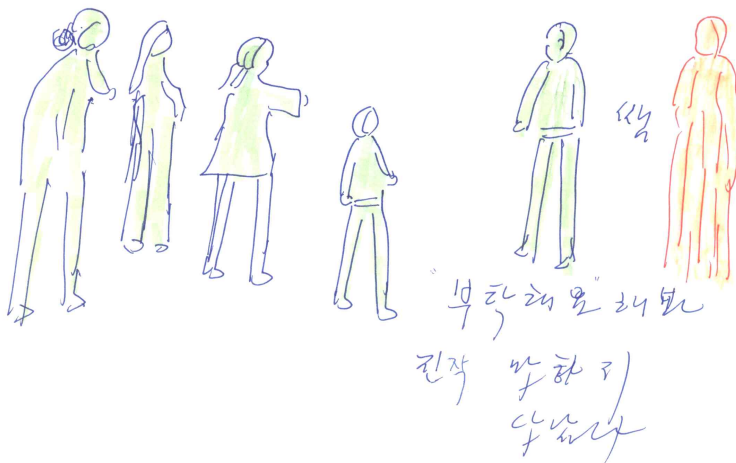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4>

무엇을 부탁할지 생각나지 않고, 무엇을 구할지 생각나지 않는 자들아. 그 방법을 가르쳐 주마.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 꼭 행하여라. 기도를 깊이 하여라. 그리고 구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합당한 것이 생각나 구하도록 내가 계시해 준다. (기도하는 모습 표현하기)



기도를 깊이 하면, 네 육체가 아닌 네 혼체가 생각하기에 필요한 것이
생각난다. 자기 영체가 생각하여 자기 혼체에게 깨닫게 하고, 혼체는 자기
육의 마음과 정신에게 깨닫게 한다.

부탁하지 않고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고 걱정 근심하고 사는 것이
다. 나 성자와 내 분체에게 부탁하여라. 듣고 합당하면 “진작 말하지 그
랬느냐. 알았다.” 한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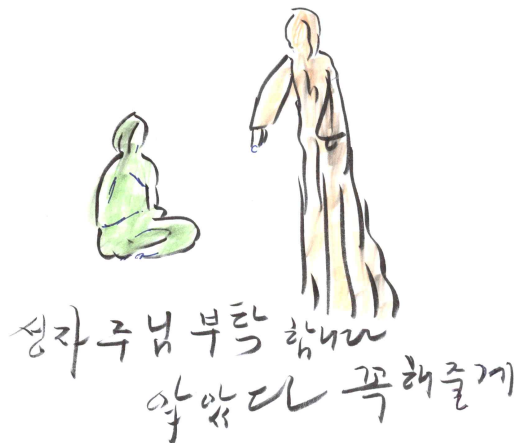


하나님과 나 성자에게 해당되는 것을 사람에게 부탁하지 말고 구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나 성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반드시 전능자에게 구하여라. 나 성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내게 구하고, 분체에게 해당되는 것은 분체에게 구하여라. 그러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내가 합당한 사람을 감동시켜 그를 통해 해 준다.

나 성자는 너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것을 구해야 된다. 그것을 너희 스스로 얻으려면 1년, 3년, 10년이 걸리고, 어떤 것은 기회가 지나가 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주인이 주면 쉽게 얻는다.

(* 마지막 화면을 보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영상5>

너희 선생은 자기의 것과 섭리의 것과 너희들의 것을 매일 구한다. 그가 너희들의 것을 매일 구했기에 그로 인해 너희가 얻는 것이며, 또 너희가 부탁했을 때 내가 쉽게 주는 것이다.



부탁하고 구하여 얻었으면, 전능자 하나님과 나 성자와 내 분체와 함께 기뻐하고 즐기며 쓰고 사는 것이다.

너희에게 구하라고 말하고, 합당한 것을 확실히 구하면 들어주겠다고 약속한 성자 주니라. 샬롬! <끝>

<축 도>

지금은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합당한 것을 확실히 구하면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합당한 것을 부탁하고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여 약속대로 합당한 것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